

100년 거목, 아름다운 숲

“10년을 넘어선 CK에 또 다른 봄이 오고 있다. 봄 빛의 신비로움을 마음껏 향유함과 동시에,

매서운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감내할 준비도 해야 할 것이다.

그래야 쉽게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뿌리와 나이테를 형성할 수 있고, 100년 가는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.”

생명이 움트는 봄기운이 도처에 물씬하다. 지난 몇 주간 감기와 싸워가며 움크러 들었던 몸이 한 낮에 드는 햇살에 그만 녹아 버린 듯한 느낌이다. 몸 구석구석 세포와 근육들이 살아나고 정신까지 가벼워진 것 같다. 매일 드나드는 종로 뒷골목 귀퉁이한 냄새도 찬 겨울 동안에는 나지 않았던 것인데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. 봄을 맞고 있는 모든 것들이 향연을 준비하듯, 그 역동성이 느껴진다.

지난 겨울을 버텨온 사무실 나무와 식물들이 대견하다. 이제 이들도 봄 햇살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을 것이다.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연의 무한 축복이며 권리이다. 10여 년 전 회사 오픈 하는 날 지인들에게 받은 나무부터, 회사와 함께 세월을 같이 해온 많은 화분들이 있는데, 오랫동안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대화하며 서로 교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. 이제는 잎새의 빛깔만 보아도 웃고 있는지, 찡그리고 있는지, 목말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, 혹이나 물 때를 놓쳤다면 주말 내내 집에서 마음이 편칠 않다.

나무와 화분을 가꾸는 것은 나에게 명상이며 즐거움이고 행복이다. 놀랍게도 식물을 관리 하면서 나는 사람과 흡사한 모습들을 발견하곤 한다. 햇빛이 잘 들지 않은 사무실에서 조명만으로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역부족이다. 따라서 뿌리가 약해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, 필요 이상의 물을 주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뿌리가 썩게 되고, 과습에 한 번 걸리면 중병으로 반드시 죽고 만다. 많은 경우 사무실 식물들이 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. 물론 무관심으로 일관해서 말려 죽이는 경우도 이쯤은 된다. 지나친 배려나 무관심 모두 10년은 키울 수 있는 나무를 1개월만에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부실인 것이다.

‘난’을 관찰하며 꼼꼼하리 만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. 물 때를 놓친 화분의 난은 모든 잎들이 동시에 시드는 것이 아니라, 한 가닥씩 차례대로 말라 죽는 것이 아닌가?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전체가 아닌 하나의 잎을 희생시킴으로써 집단의 생존력을 지속시키고 있었던 것이다. 사실 이와 비슷한 생존 메카니즘들이 모든 화분의 마이크로 세계에서 변화무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. 그 속에 기생하고 있는 아주 조그만 벌레들까지 포함해서 말이다. 생명력은 정말 강하다. 다 죽을 것만 같았던 식물도 시간 맞춰 빛을 주고 물을 주면 다시금 보란 듯이 살아난다. 생명은 그 자체로서 온전함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.

10년을 넘어선 CK에 또 다른 봄이 오고 있다. 봄 빛의 신비로움을 마음껏 향유함과 동시에, 매서운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감내할 준비도 해야 할 것이다. 그래야 쉽게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뿌리와 나이테를 형성할 수 있고, 100년 가는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. 그런 Carrotian들이 모여 우리는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갈 것이다.

Written by C.E.O 노상충 (James Roh)



James Roh

